

예술 감상하러 도심 봄나들이 갈래요?

해외여행 재개의 희망을 키우는 소식이 하나, 돌 돌 려오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외국 나들이가 어렵다. 그 대안으로 다양한 주제의 도심 또는 근교 여행지들이 요즘 사랑받고 있다. 만약 홍콩 센트럴 갤러리 디스트릭트나 런던 내셔널 갤러리, 뉴욕의 첼시 거리 등 해외여행 때 아트투어를 좋아했다면 서울 강남구를 주목해 보자. 강남구에는 많은 갤러리들이 있는데 봄날 반나절 정도의 가벼운 나들이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곳들이 있다. 마침 서울관광재단이 강남구의 ‘강남 아트 워킹 투어’를 참고해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며 방문해볼만한 갤러리와 박물관을 추천했다.

호텔 안테룸, 여러 공간마다 예술품 접목
이길이구, 합리적인 가격의 작품들 소개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유물 300여종 전시

●도심 호텔에서 예술 체험, 갤러리9.5서울

지난해 8월 개장한 호텔 안테룸 서울의 부대시설로 지하 1층에 있다. 젊은 아시아 작가의 개성있는 작품을 주로 전시한다. 아트 토크, 출판 기념회, 영상 상영회와 같은 문화행사도 정기적으로 열린다. 4월 18일까지 ‘예술과 문화’ 주제로 정기 전시가 열리고 있다.

지하 외에 객실, 레스토랑, ARTBOOK STORE&BAR, 엘리베이터 등 호텔 여러 공간에 예술가의 창작물을 접목했다. 호텔 자체가 갤러리라 해도 무방하다. 그중 한곳을 추천한다면 19층 ‘TELLERS9.5’를 꼽을 수 있다. ‘작가의 리빙룸’ 콘셉트로 낮에는 예술서적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칵테일을 마실 수 있다. 전망이 매력적으로 테라스에서 한강과 동호대교, 한남대교, 남산이 멋지게 보인다.(강남구 도산대로 153)

●초보 컬렉터도 편한 이길이구 갤러리

2015년 개관한 이길이구 갤러리(2GIL29 GALLERY)는 예화랑 수석 큐레이터 출신인 백운아 대표가 설립했다. 한번 들어도 쉽게 기억되는 중독성 있는 갤러리 이름에는 ‘작가와 갤러리스트라는 다른 두 길(이길,二路)’을 가는 두 친구(이구, 二口)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격대가 합리적인 작품



봄날 반나절 정도의 가벼운 나들이 코스로 돌아볼 수 있는 ‘서울 강남 아트 워킹 투어’가 주목받고 있다. 벽에 회화 작품이 걸려 있는 호텔 안테룸 서울 1층에 자리한 갤러리9.5서울, 이길이구 갤러리 1층 소형 전시장에 열린 작은 전시 공간, 여러 건축상을 받은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인 예화랑, 분가루·분침·분접을 전시하고 있는 코리아나화장박물관(위부터 시계방향)

을 소개해 예술품 수집을 시작한 초보 컬렉터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4월 23일까지 MY Q 작가의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다.(강남구 강남대로158길 35<신사동>)

●강남 갤러리의 터줏대감, 예화랑

1978년 인사동에 문을 연 예화랑은 1982년 신사동으로 이전했다. 강남 지역에 처음 개관한 갤러리다. 근현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순수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2019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독특한 외벽의 화랑 건물도 유명하다. 2006년 한국건축가협회상, 2006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특별시건축상, 2007년 젊은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세계적인 건축상 AR 어워드 등을 수상했다.(강남구 가로수길 73)

●‘국내 유일’ 코리아나화장박물관

2003년 개관했고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씨의 5, 6층에 있다. 국내 유일의 화장 전문 박물관이다. 삼국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화장 용기, 화장 도구, 장신구 관련 유물 300여 종을 전시한다. 코리아나 유상옥 회장이 국내외에서 수집한 것이다. 5층은 한국 전통 화장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이다.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무료 오디오 가이드 앱을 다운로드하면 유물에 얹힌 역사를 들을 수 있다.

6층은 한·중·일 화장 문화를 비교하는 화장 도구 전시 공간과 연 2회 생활 민속 관련 소장품을 기획 전시하는 특별 공간이다. 4월 초에 칠공예를 테마로 한 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강남구 연주로 827)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호텔 숙박권·뷔페 식사권 드려요” 제주드림타워, 인스타그램 이벤트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가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4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스타그램 계정(@jejudreamtower)을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면 응모된다. 본인 계정 스토리에 공유 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45만 원 상당의 그랜드 하얏트 제주 숙박권 14매를 비롯해 24만 원 상당의 인터내셔널 뷔페 그랜드 키친의 디너뷔페 2인 식사권 14매 등 총 100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당첨자 28명에게 증정한다. 제주드림타워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

종 프로모션 및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소식과 호텔 이용 꿀팁 등의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제주공항에서 10분 거리인 제주드림타워는 모던 코리안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로 지난해 12월 18일 개장했다.

김재범 기자

나우, 스타벅스 컵으로 친환경 상품 만든다

친환경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우(nau)가 스타벅스 플라스틱 컵으로 친환경 상품을 만든다. 스타벅스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가 페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전 과정(배출-수거-재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4월 26일까지 소비자들이 라벨 스티커를 제거한 후 깨끗하게 세척해 물기를 제거한 스타벅스 플라스틱 컵과 투명 생수병을 나우에 전달하고, 나우는 이를 활용해 ‘K-rPET(케이-알피티) 재생섬유’의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상품으로 재탄생 시킨다. 이 상품은 9월 중 스타벅스 매장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업계 최초 ‘ESG 위원회’ 설립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처음으로 ‘ESG 가치추구 위원회’를 설립하고 24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이강 롯데면세점 대표(사진)는 ESG 경영비전 아래 전 사업 부문에서 ESG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선포식에서 친환경 소재 비닐 도입, 태양광 발전, 지역 사회 및 소상공인 ‘상생’,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강화, 경영 투명성 강화 등 세분화된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6일(금) 음력: 2월 14일 문익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겠지만 노력하면 이룬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이때를 삼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문학·예술 분야 또는 시험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나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자람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레저

스포츠동아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15



▲ 네파 ‘스피릿 고어텍스’ (왼쪽)와 코오롱스포츠 ‘무브’.

산린이를 위한 올 봄 신발 트렌드 “기본 기술력 탄탄한 초보자용 추천”

네파, 일상에서도 편안한 ‘스피릿 고어텍스’ 선택

‘산린이(등산+여린이)’들이 늘면서 SNS에서는 평소엔 신던 밭창이 얇고 가벼운 스니커즈를 신고 ‘산 어디까지 올랐다’, ‘이만큼 트레킹 코스를 걸었다’는 인증샷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당장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용도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아웃도어 마니아들이 액티비티에 맞춰 등산화, 트레킹화, 하이킹화를 종류별로 갖추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한 엔트리족에게 종류별로 신발을 구입하도록 추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신발을 용도별로 알아서 잘 고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이럴 땐 기본 기술력을 갖춘 초보자용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엔트리족을 위한 신발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네파는 ‘요즘 아웃도어’를 지향하며 아웃도어 엔트리족을 위한 라인 C-TR 3.0을 새롭게 론칭했다. 대표 슈즈는 ‘스피릿 고어텍스’. 심플하고 날렵한 디자인을 앞세워 아웃도어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볍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처음 아웃도어를 접하는 엔트리족도 부담없이 신을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다.

코오롱스포츠는 아웃도어 스니커즈 ‘무브’를 업그레이드 출시했다. 캐주얼한 스니커즈 외관에 등산화 기술을 담았다. 밭창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구름(구름표가 있는 부분)이 발등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며 바로 고무 소재의 토캡을 배치해 무브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K2의 ‘플라이하이크 큐브’는 중창(미드솔)에 고탄성 그래핀 폼과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한 플라이폼을 이종으로 적용해 쿠셔닝이 뛰어나다. 초경량으로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도 버킷 디워커의 프리미엄 라인인 ‘버킷 디워커 에어’를 선보였다. 자체 특허 기술을 적용해 신발의 무게를 최소화하고 에어백을 장착했다. 보행 시 업그레이드된 쿠션감을 느낄 수 있다.

아이디어는 걷기 여행 ‘투어링’에 최적화된 ‘투어링 워크’를 출시했다. 올 시즌 처음 선보인 제품으로 다양한 지형의 길을 장시간 걸어도 편안하도록 수차례의 성능 평가와 250km 누적 필드테스트를 거쳤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오늘의 날씨				26일(금)			
서울	10/20	인천	10/20	춘천	0/20		
	6 20		5 16		2 20		
강릉	0/20	대전	10/20	전주	20/10		
	9 18		5 23		5 23		
광주	0/0	대구	0/20	부산	0/0		
	5 25		6 23		8 20		
창원	0/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7 22		9 21	날씨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4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광고국장 이숙옥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